

성전 짓기 전의 일을 기억하라

■ 학개 2장 14~19절

■ 28장(통28), 540장(통219)

■ 2018년 8월 12일

성전 재건 시작 이전의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부정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집을 먼저 짓기 바빴고, 거기에는 외부적인 핍박으로 인해 중단되고 만 성전은 결국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는 갖가지 노력을 해도 막힌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다 백성들이 부정하다는 말씀입니다(14절).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14절). 여호와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에게 두 가지를 물어보게 합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찢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성물이 되는지 물어봅니다(12절). 제사장들이 “그것은 부정하고, 성물이 되지 않는다.” 고 대답합니다. 옷자락에 찢 거룩한 고기는 유다백성이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사를 거룩한 의식으로 드린다고 해도 유다백성이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다백성들이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미 부정한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그것을 만지면 부정하니를 물어봅니다(13절). 제사장들이 “부정하다.” 고 대답합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민19:22).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그 신앙이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 유다나라와 유다백성과 그들이 드리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백성들은 성전건축을 하지 않은 불순종으로 인해 부정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고레스 왕을 통해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1년간 재료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여호와께 제사로 영광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이 제사드릴 때 심령이 살아났고, 새롭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어 버리고 14년간이나 방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는 **첫째,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들의 판박한 집을 먼저 지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살 집을 짓느라고 바빴습니다. **셋째, 원수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방해할 때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성도의 영이 자라나고 영적인 성전이 잘 지어져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죄를 사함 받고,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심령,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전이 날마다 지어져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할 때에 영적 성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유다백성은 성전건축을 중단하고 회복하기 위해 다른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사도 드렸고, 거룩한 제물도 드렸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풀어지지 않고 오히려 막히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 짓기 전의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15~17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와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15절). 성전건축이 중단 되었을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 수고해도 얻지 못했습니다.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밖에 얻지 못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길어도 20고르밖에 얻지 못했습니다(16절). 이와 같이 영적 성전을 잘 짓지 못하면 수고한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둘째, 모든 환경이 막혔습니다. 유다백성이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치는 재앙이 일어났습니다(17절a). 감부기 재앙은 곰팡이로 인해 모든 것이 썩고 상하는 재앙입니다. 결국 곡식이나 다른 것을 살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을 다 막으셔서 노력해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다(17절b). 유다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다. 마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강박한 마음이 되었습니다(마11:17).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징계들이 있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건축을 다시 시작하면 재앙을 거두고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영적인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영감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이 자라난 만큼 영적 성전이 지어지고, 권세와 능력이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다.

마지막으로는, 성전을 짓는 날부터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18~19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이십사일 곧 여호와와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18절). 여기서 오늘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날을 말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곡식 종자가 창고에 없었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했었습니다(19절a).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19절b). 성전 지대를 다시 놓기 시작한 9월 24일 이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받고, 열매가 신령해지고, 범사도 바로 되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그 때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여 우리 영이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영적인 제사가 되고, 거룩한 것이 되고, 교회가 신령하게 세워지고, 성도들은 점점 자라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성전 짓기 이전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는 유다 백성들이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부정한 자가 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른 노력들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전을 날마다 지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많은 노력을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순종해서 날마다 성전을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요 공과 내용

1. 유다 백성이 부정해진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11~14절).
2. 성전 짓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보세요(15~17절).
3. 성전을 짓는 것이 왜 중요한 일인지 설명해 보세요(18~19절).